이코노 & 비즈 피플

이노비즈협 초대 광주·전남 지회장 김 식 G금강 대표

"기술로 승부내는 기업 2년내 2000개로"

회원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힘쓸 것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형 선도기업 육성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에 힘써 현재 254개인 회원사를 임기(2년) 내에 2천개 이상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지난 16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광주·전남지회 초대 지회장으로 취임한 김식(46) G금강(주) 대표는 "회원들의 성원으로 초대 지회장을 맡게 됐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회원사와 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노비즈 기업은 혁신을 뜻하는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사업(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설립 3년 이상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1만5천988개 기업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다.

이들 기업들이 만든 단체가 이노비즈협회다. 지난 2002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중기청 산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았다.

협회는 이날 광주·전남지회 창립으로 강원, 충북, 대전·충남, 대구·경북, 경남, 제주지회 등 총 7개 지회를 갖춰, 중소기업단체로는 유일하게 전국 조직망을 구축하게 됐다. 광주·전남에는 이노비즈기업이 613개 사가 있으며, 이 중 광주 123개, 전남 131개 등 총 254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김 지회장은 "이노비즈 기업은 벤처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징검다리 격의 중소기업"이라며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액이 3.5배, R&D 투자 3.2배, 일자리 창출 2.3배가 높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체의 99%, 종업원 수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회원 기업간 교류·협력, 협회 차원의 경영·기술·자금 지원, 관로 개척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식 지회장은 현재 G금강, 금강플렌트 등 3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연 매출 1천억원, 300여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개념 농기계인 복토직파기와 장애인 전용 전동휠체어를 개발해 생산하고 있다. 또 광주시 투자유치위원, 북구 기업지원위원회 부위원장, (사)통일네트워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 광주시민대상(경제부문)을 수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 주간 증시포커스

해운·항공 등 원화강세 수혜주 금융주와 함께 분할매수 바람직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다.

현재 미국경제는 낮은 물가압력과 소비경기 회복세가 함께 나타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자심리를 압박했던 가파른 원화강세는 위안화의 조기 절상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진정되고 있다. 수급측면에서 가장 큰 위협요인이었던 투신권에서의 대규모 펀드자금 이탈도 점차 진정되는 흐름이다.

금주는 국내외 기업들의 실적발표가 잇따르면서 실적장세 구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또 미국에서 회복세가 가장 부진한 부문인 주택경기와 관련, 기존·신규 주택판매가 각각 4개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음 달에 열리는 미·중 경제전략회담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중장기적으로 원화 강세기조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예상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지표나 기업실적들이 뚜렷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1분기에 11.9%의 성장세를 기록해 국내 수출경기 전망은 밝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추가 상승으로 맞춰 놓되 원화강세 기조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수출주 대응전략은 향후 업황 호조세의 지속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전통적인 원화강세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 및 수주 모멘텀의 강화와 저가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주에 대한 매수 관점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수익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철강 및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측면의 비중 축소를 권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원화강세 기조의 정착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해운이나 항공, 유화 등 원화강세 수혜주에 대한 분할매수 대응과 병행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금융주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매수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 장터 개설

16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제일은행 앞 광장에 개설된 '농축산물 금요 직거래 장터'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같은 장소에서 직거래 장터를 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예적금 한달 내 해지해도 6월부터 이자 받는다

은행에 가입한 예적금을 한 달 내에 해지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SC제일·산업을 제외한 15개 은행은 예적금 가입 후 1개월 이내 중도해지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터 0.1~1.0% 수준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을 비롯 신한·외환·씨티·국민·대구·부산·전북·경남·농협·수협·HSBC 등 12개 은행은 수시입출식예금과 동일한 수준인 0.1%의 중도해지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우리(1.0%), SC제일·제주(0.5%), 기업(0.3%), 산업(0.25%), 하나은행(0.2%) 등 6개 은행은 0.2~1.0% 수준의 이율을 적용한다. /연합뉴스

유통업계 '지구의 날' 마케팅 활발

친환경 머그컵 등 증정

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유통업계가 친환경적인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는 이달 말까지 광주를 포함해 전국 300여개 매장에서 휴대용 개인컵인 텀블러를 이용해 음료를 주문하거나 일회용 컵 10개 이상을 모아서 가져오면 음료값 300원을 할인해 주거나 친환경머그컵을 증정한다.

또 음료를 머그컵으로 주문할 경우 50원씩 환경기금을 적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전액 친환경 제품으로 고객에게 환원한다.

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도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홈플러스 동광주점은 오는 28일까지 생활용품 브랜드인 P&G의 제품 용기를 가져 오면 홈플러스 패밀리카드 500포인트 쿠폰을 증정한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23~25일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5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사과를 증정한다. /이은미기자 emlee@

농협 광주본부 경영평가 전국 1위

농산물 판매 등 우수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정종순)가 농협중앙회의 올 1·4분기 종합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농산물 판매, 고객관리, 성장기반, 재무관리 등 33개 평가항목에서 타 지역본부를 압도해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농협 광주본부는 지난해에도 3분기 연속 종합경영평가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정종순 본부장은 "책임경영, 지역 봉사경영을 실천한 결과"라며 "연간 종합경영평가에서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